

방랑 시인의 발자취에서 사랑과 예술을 만나다

<릴케의 시적 방랑과 유럽 여행>
저자 독어독문학과 김재혁 교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만약 릴케가 살아있다면 김재혁 교수를 그렇게 칭할 법하다. 방랑시인 릴케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발과 손과 가슴으로 써내려간 한 권의 책. <릴케의 시적 방랑과 유럽 여행>에는 유럽의 옛 시인을 연구해온 한국 독문학자의 38년이 오롯이 담겨있다. 책 속에서 릴케와 김 교수는 한 쌍의 아름다운 ‘소울메이트’다. 그들의 눈부신 동행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본다.

시공간을 초월한 시인과의 대화

한 사람을 깊게 사랑하는 일은 한 세계를 넓게 여행하는 일이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을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그 사람이 없었다면 끝내 가보지 못했을 땅들을 두 발로 밟게 되는 일.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마법이다. <릴케의 시적 방랑과 유럽 여행>은 그 사랑의 절절한 기록이다. 김재혁 교수가 무려 38년간 연구해온 릴케의 모든 것이 450여 쪽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모든’ 것이 담긴 만큼 장르가 불분명하다. 깊이 있는 전기(傳記)이자, 낭만 가득한 여행기이자, 지성 넘치는 예술서다. 위트 있는 인터뷰집이기도 하다. 무엇이 됐든, 이 책만의 독특한 향기가 책장마다 스며있다.

“릴케는 방랑의 시인이예요. 거쳐 간 나라만 12개국이고, 거처로 삼았던 곳도 100군데가 넘어요. 그의 시가 초기의 무해한 달콤함에서 벗어나 고통과 번민의 색깔로 물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영롱함을 선보일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방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릴케가 한 장소를 거쳐 갈 때마다 한 권의 새로운 시집이 탄생했어요. 예컨대 러시아 여행 뒤에는 <기도시집>이, 북독의 화가촌 보름스베데를 거친 뒤엔 <보름스베데에서 그리고



※ <릴케의 시적 방랑과 유럽 여행>은 박준구 우신캠택 대표(철학과 62학번)의 기부로 만들어진 인문학 진흥을 위한 '박준구 기금'의 저술 지원으로 출판되었다.

그 후>가, 두이노 성과 뫼조 성을 거치면서는 <두이노의 비가>와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가 탄생했죠. 여행은 시인에게, 신선한 낱말들을 선사해주는 화수분이었어요.”

프라하, 뮌헨, 파리, 프로방스, 피렌체, 베네치아, 빈, 모스크바, 리옹, 볼로냐, 취리히, 시에르... 릴케가 시를 위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것. 그리하여 그가 피부로 느꼈던 바람 소리를 듣고, 그가 맡았던 각 지역의 냄새를 직접 맡아보는 것. <릴케의 시적 방랑과 유럽여행>은 그 소망으로 시작한 책이다. 자칫 무난한 여행기가 될 수 있었던 책에 김재혁 교수는 새로운 시도를 접목했다. 1875년에서 태어나 1926년에 사망한 릴케를 ‘지금 여기’로 불러내, 함께 대화하는 구성으로 글을 써나간 것이다. 서울 인사동에서 첫 만남을 시작한 ‘두 사람’은 릴케의 시와 삶에 중요 정거장이 돼준 곳들에서 내밀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주고받는다. 릴케에 대한 앎과 사랑이 따뜻한 상상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오랜 시간 공부해온 릴케를, 그와의 대화를 통해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쓰면서 정말 즐겁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제가 술을 잘 못하는 릴케에게 동동주를 권하면, 릴케가 ‘이 술에도 부드러운 가을의 햇살이 배어 있는 것 같다’고 답해요.

릴케의 일기와 작품, 편지 등을 기반으로 그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일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릴케가 머물던 곳의 햇살과 바람 속으로

책에는 릴케가 다닌 여러 도시와 그곳의 카페, 호텔, 고성 등의 사진이 담겨 있다. 무려 20년간 김재혁 교수가 틈틈이 발품을 팔며 찍은 것들이다. 그 많은 곳을 따라가며 그는 생각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여행사를 차리고, 릴케가 머물던 곳에서 탄생한 작품들을 함께 읽어도 좋겠다고. 행복한 ‘부업’을 상상할 때마다, 그의 입가엔 소년의 미소가 걸린다.

“다녔던 모든 곳이 인상 깊지만, 릴케가 홀로 살며 <비가>를 완성한 스위스 시에르의 ‘뫼조 성’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돌로 지어진 뫼조 성은 중세의 느낌을 여태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몸이 약한 릴케에게는 매우 춥고 불편한 곳이었을 텐데도, 낯선 언어가 들리는 그곳에서 기꺼이 새로운 시를 써내려갔어요. ‘심장을 던져놓고 그 심장이 가는 곳으로 따라간다.’ 릴케의 표현이에요. 그 말의 참뜻을 이제 알 것 같아요.”

<비가>가 시작된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해안의 ‘두이노 성’



① 두이노 성 입구 ② 보름스베데의 바르켄호프. 릴케와 부인 클라라 ③ 릴케의 무덤이 있는 꼭대기 부르크키르헤 모습 ④ 보름스베데, 화가 하인리히 포겔러의 집 바르켄호프



(위) 뮌조 성 앞
(아래) 두이노 성 안뜰



도 기억에 남는다. 바다 위 절벽에 얹힌 그 고성이었다면, 그토록 장중한 <두이노의 비가>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부 독일의 화가촌 보름스베데도 쉬이 잊히지 않는다. 릴케가 신혼생활을 했던 보름스베데는 넓은 들판이 펼쳐진 습지대다. 어느 가을 김재혁 교수는 이곳의 한 가정집을 빌려 일주일간 생활했다. 매일같이 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그에게 집주인 아주머니가 말했다. 이곳은 ‘빛이 다르다’고, 아무렇게나 카메라를 들이대도 사진이 아주 잘 나올 거라고. 진짜 그랬다. 릴케가 걸던 자작나무 길엔 지금 보리수나무가 심어져있지만, 들과 물의 신비한 빛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일 터였다.

“여행을 즐겼던 릴케가 가장 싫어했던 게 여행안내 책자였어요. 남이 간 곳을 무작정 따라가게 만들어, 자신만의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명한 여행지에 가서도 릴케는 남과 다른 곳을 보고 왔어요. 가령 베네치아라면 그 유명한 운하와 건축물 대신 아르세날레라 불리는 조선소 및 병기장을 보고 오는 식이었죠. 릴케는 아르세날레를 베네치아의 심장이라 생각했어요. 그의 독특한 시선 덕분에 같은 곳을 다르게 보고 오는 행운을 누렸어요.”

훗날 여기서 살고 싶단 생각이 드는 곳은 단연 남프랑스였다. 릴케의 시 <가을날>에서 그가 왜 ‘이틀만 더 남국의 빛을 달라’고 했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곳이었다. 책상에서 시를 접할 때와 직접 가서 시를 만나는 일은 확실히 달랐다. 릴케가 머물던 곳의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그는 비로소 시인의 참모습과 마주하게 됐다.

“제 고향이 충북 증평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살았어요. 밤에 공부하다가 호롱불에 머리카락을 그을리는 일이 아주 흔했죠. 먼 곳에 대한 동경은 그 때 생겼던 것 같아요. 낯설고 새로운 것을 향한 마음이 독어독문학을 전공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낯선 곳에 대한 동경은 릴케만의 것이 아니다. 자신과 릴케의 공통점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는 말하지만, 두 사람이 영락없는 닮은꼴이라는 걸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김재혁 교수도 시인이다. 번역가이자 평론가로 활발히 활동하는 째짤이 <판생각>, <아버지의 도장>, <내 사는 아름다운 동굴에 달이 진다> 같은 서정시집을 꾸준히 출간해왔다. ‘시’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릴케와 그는 영원한 소울메이트다.

“지난해 10월부터 한 학기 동안 독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 대학원생들을 가르쳤어요. 수업이름이 ‘릴케 인 코리아’였어요. 릴케의 시를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 릴케의 영향을 받은 한국 시인(윤동주, 백석, 서정주, 김현승, 김춘수, 김기택)의 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 한국에서 릴케가 어떻게 수용됐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을 함께했죠. 학생들이 수업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종종 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적잖은 행복을 맛봤을 거라 생각해요.”

문득 궁금해진다. 사랑하는 시인 하나 가슴에 품으면, 우리도 것처럼 행복해질까. 🌻